

하루를 시작하며



고 나혜
시인

제주 농업이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들어섰다. 한·미 FTA 로드맵에 따라 미국산 만다린 관세가 0%로 전환되며 무관세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수입량 급증과 기후 위기, 부채의 늪이라는 ‘삼중고’는 현장의 공포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물론 우리 농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지원하는 점에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치솟는 인건비와 기타 생산비를 감안해 보면 농가 소득이

2026 제주 농업, 위기를 ‘르네상스’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 있을 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현장의 고통을 살피는 더욱 촘촘하고 정교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가장 뼈아픈 현실은 ‘기후의 배신’과 ‘시설 투자의 역설’이다. 만감류의 열과 피해는 일상이 됐고, 수입산에 맞서기 위해 단행한 시설투자는 오히려 참혹한 부채를 남기고 말았다. 올해 FTA 기금 사업의 약 47%가 농가 자부담과 융자로 채워진 현실에서 고금리 이자는 농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도정은 이제 개별 농가에 빚을 관하는 관성을 멈추고 정교한 생존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프랑스식 ‘농업재해기금’을 도입해 기상 이변 손실을 재해로 인정해 소득을 보전하고, 네덜란드식 ‘공동 시설

단지’ 모델로 초기 투자비와 부채 부담을 원천 차단하는 실질적 금융방패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제주 농업은 다시 일어설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제주의 상징인 ‘감귤’의 자존심 회복이다. 관세가 사라진 수입산에 맞서 제주는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의 초신선 가치로 승부해야 한다. 제주 화산토의 생명력은 감귤을 단순 과일 이상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격상시킬 것이다. 두 번째는 독보적 자산인 ‘월동 채소’의 경쟁력이다. 양배추, 무, 브로콜리 등 겨울철 육지 농산물이 얼어붙는 계절에 홀로 생명을 키워내는 제주의 월동채소는 수입 농산물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내수 시장의 절대 강자다. 육지 농업이 멈춘 시기에 발휘되는 이 특수한 생산력이야말로 제주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키워드다.

마지막으로 농업과 관광의 결합을 통한 ‘관계 농업’의 실현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푸드 시스템을 제공하고 농장을 치유의 공간으로 제안할 때, 농촌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을 막는 숨구멍이 열릴 것이다.

2026년은 제주 농업의 골든타임이 끝나는 해가 아니라, 제주의 흙과 농심을 믿고 ‘제주형 농업 르네상스’를 시작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 정부와 제주도는 이제 속 빈 홍보 대신 농민을 구할 금융 방패와 공정한 지원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농민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정책적 관심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0% 관세라는 숫자보다 뜨거운 것은 농민의 정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의지다. 제주의 생명 시계는 지금이 순간에도 빠르게 흐르고 있다.

열린마당

‘생명길’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주세요



김 대홍
서귀포소방서 대응총괄팀장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적 열쇠는 바로 ‘골든타임’ 확보에 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본격적인 진압을 시작하기까지의 몇분이 때론 누군가의 삶을 결정짓는다. 소방차의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공동주택 내 ‘불법 주정차’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는 소방차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는 전용구역을 점령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귀포소방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2025년 한 해 동안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해 10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면 누구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단속과 과태료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성숙한 안전 의식이다.

화재 현장에서의 1분 1초는 생과사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오늘 퇴근길, 우리 아파트 단지 내 노란색 소방차 전용구역이 비어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 빈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절실한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오 지사 “평화, 도민 삶 확장 10년 준비”

평화의 섬 21주년 메시지

○…오영환 지사는 27일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지정 21주년을 맞아 “평화를 외교와 국제 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도민 삶 전반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발표.

오 지사는 이번 메시지에서 평화의 의미가 전쟁의 부재를 넘어 인권과 환경, 연대와 포용을 아우르는 ‘적극적 평화’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세계 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계기로 마련한 ‘세계 평화의 섬 비전 2035’를 도민 공론화를 통해 보완·발전시켜 수립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평화를 외교와 국제 교류를 넘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고 지속되는 평화 실천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향후 계획을 제시.

전선희기자

해안서 ‘흰색 물질’ 소동

○…차(茶) 봉지 마약이 잇따라 발견된 제주 해안에서 의문의 흰색 고체 물질이 재차 발견, 사건이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으나 수사당국이 ‘화들짝’ 놀라.

27일 제주해경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2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도로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됐다는 바다환경지킴이의 신고가 접수되며 공동대응에 나섰고, 해경은 해당 물체 발견 당시 간이시험작사를 실시해 음성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당 물체는 흰색 파우더 형태로 중국산 화장품의 일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해안가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양유리기자

사설

골재 채취 공영개발 방식 검토할 만하다

앞으로 3년 이내에 골재 부족으로 건설 자재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연구 용역결과가 나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암반공학회가 지난해 수행한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 채취 및 복구·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도내 9곳 채석장이 허가 받은 토석(골재) 채취 물량 1167만7000㎥ 중 82%인 963만7000㎥에 대한 채취가 끝나 남아있는 물량이 204만㎥로 실제 제주지역 골재 수요 342만7000㎥의 60% 수준에 불과해 심각한 골재 공급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용역팀은 지난 2015년 원희룡 도정 때 추진됐던 채석장 공영 개발을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부족한 골재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석장 추가 개발이 있지만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익도 환원할 수 있어 도민여론에도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

난 2015년 당시 제주연구원이 이 해관계인 350명과 일반도민 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도 공영개발 방식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도민 34.6%, 이해관계자 53.7%로 반대보다 많았다.

일부에서 건설공사에 대해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제주지역 경기 활성화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야하는 만큼 골재 수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 도민 공론화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2015년 의견조사 당시 공영개발방식의 장점으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에 우선 순위를 뒤야 하는 의견이 많았던 부분을 염두에 두고 환경 훼손 최소화와 개발 이익 환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골재 공영개발방식에 대해 제주자치도의 긍정적인 사고 전환이 요구된다.

학교 안전 사각지대 되나… 안전사고 급증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줄어들어도 시월치 않을 판에 4년째 증가추세다. 학교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학교안전사고 분석 통계에 따르면 도내 학교안전사고는 2020~2024년 5년간 1만4785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은 1255건으로 전년 2720건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대면수업이 다시 재개된 2021년에는 2163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3109건, 2023년 3942건, 2024년 431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학생 100명당 사고건수도 2020년 1.47건에서 2021년 2.50건, 2022년 3.60건, 2023년 4.63건, 2024년 5.16건으로 증가폭이 가파르다. 5년간 학교급별 안전사고는 초등학교

가 63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안전사고의 42.7%를 차지해 초등학교가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그 다음 중학교 5026건, 고등학교 2766건, 유치원 645건, 특수학교 41건순이었다.

도내 학교 안전사고는 5년 전보다 3배 증가했다. 증가폭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발생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학교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배움의 전당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교육당국과 학교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신체활동이 왕성한 시기다 보니 안전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뒤따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감사의 말씀

제주영락교회 이승선 은퇴장로(향년 8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1월 28일

배 우 자 김부자 은퇴권사
아 들 이수혁
장 녀 이수미 사 위 좌옹식
차 녀 이수지 집사 사 위 성기용 집사
장례위원장 제주영락교회 김정서 원로목사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소유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도백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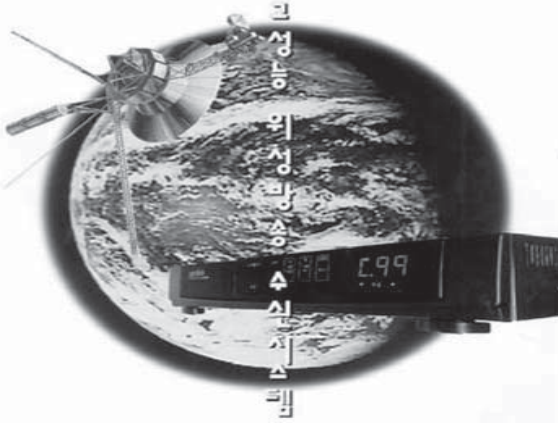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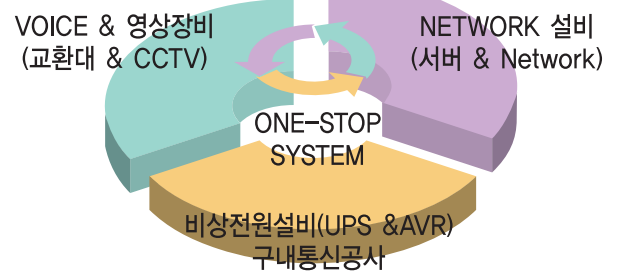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